

예배 및 모임안내

2019-37호 2019년 09월 15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2	09. 29	10. 06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박예슬 자매
헌 금 위 원	황희순 집사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안 내 위 원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신1~22장)
2. 친교실 안내 - 식탁 설치와 정리를 협조해주시요.
3. 청년 나눔 - 친교실 정리 후 5번 교실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 여전도회 월례회 - 다음 주일(22일)에 모입니다.
5. 연합 수련회 기도회 - 한민교회는 20(금)~23일(월)까지 금식기도 담당입니다.
6. 북독 청년연합수련회 : 10월2일(수)~4일(금) 함부르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
7. 나눔의 시간 - 추석 식사로 여전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형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5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4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176장 다같이
- 기 도 Gebet 박재기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레 15 : 13 -18(구p169).....박재기 집사
(3.Mose 15:13-18)
- 설 교 Predigt 유출병 규례를 통한 교훈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199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영희 권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가장 중요한 보물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 속에 실제로 자리 잡은 것이어야 열정이 생기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해야 지치거나 피곤하지도 않으며, 시간이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1)”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것이나 자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을 추구합니다. 돈, 사랑, 성공, 명예 등 자기 마음속의 실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왜 유독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도 실재가 되지 않는 걸까요? 왜 부흥회나 집회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금방 잊어버리고 늘 그렇게 똑같은 삶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는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내면의 갈망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베풀어주신 영광이자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 김용의 선교사
(순회 선교단 설립자)

* 하나님은 가득 채운 손보다 깨끗한 손을 보신다. - Decimus Laberius -